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어버이 주일

오늘 주일(5.10) 오전 11시 예배는 어버이주일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대표기도 : 한은총 학생
특별찬송 :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머니 마음)
오후예배 : 부모님 초청 삼겹살 파티

3. 스승의 주일

오늘 주일(5.17) 오전 11시 예배는 스승의주일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특별찬송 : 어린이, 청소년(스승의 은혜)

4. 구역예배

일시 : 2026년 5월 14일(목) 오후 2시
장소 : 김해숙 권사 (동탄대로24가길 27, 동탄2 LH1단지 121-201)
다음 : 박제연 집사

5. 북한선교위원회 제14회 정기총회

일시 : 2026년 5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본부 대예배실

6. 청소년 예배 시간 변경

청소년예배 예배시간을 매주 토요일 저녁 6:00로 변경합니다.

7. 2026년 5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3.15 ~ 4.15)

5.25(월) 문재효 형제 5.27(수) 임명자 집사(-4.11) 5.28(목) 박수진 자매

가정과 사랑의 달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05/10	어버이 주일 / 삼겹살 애찬 파티
05/11	북한선교위원회 제14회 정기총회
05/12	교회어르신 위로 모임
	아하브코업 홈스쿨 5월 장기모임
05/14	예수 그리스도 승천의 날
05/17	스승의 주일
05/24	부부 주일 / 가정의 주일
	성령강림주일 / 성결교회주일
05/26	아하브코업 홈스쿨 5월 장기모임
05/30	삼위일체주일 / 선교한신예배
06/01	찾날맞이 일석예배 (성찬)
01~05	나라와 민족을 위한 호국기도회
06/03	제9회 정국동사자향안거
06/06	산상기도회(전쟁기념관 순교자)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정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정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분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당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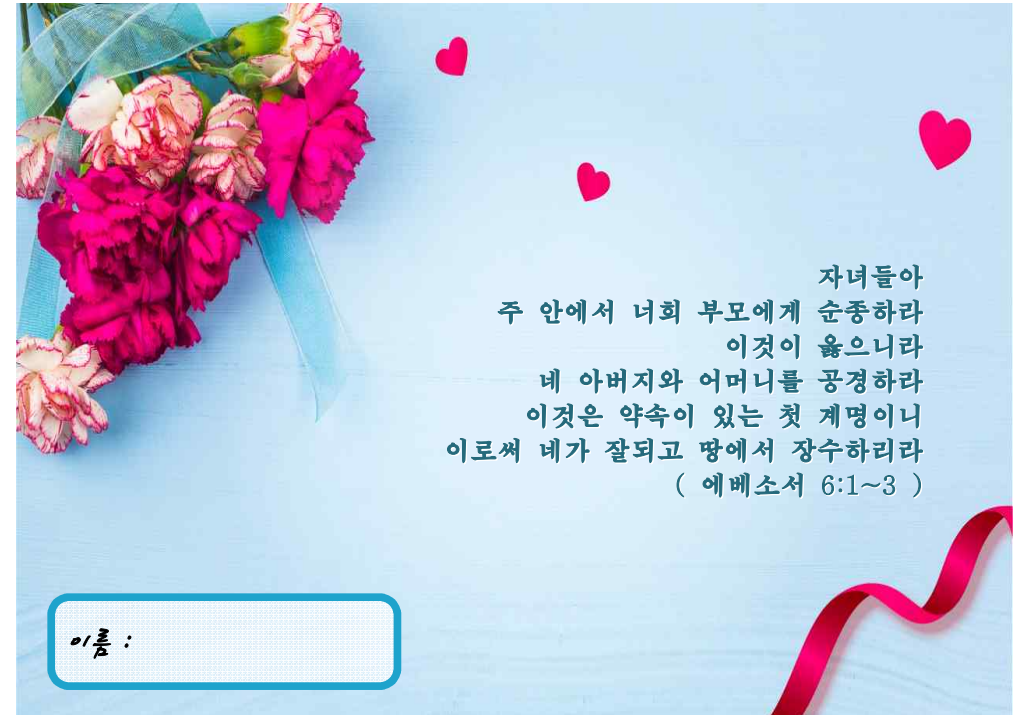


주일대표기도

05/10	한은총 자매
05/17	박제연 집사
05/24	이광근 안찬
05/31	임명자 집사
06/07	임명숙 집사
06/14	김해숙 권사
06/21	정현숙 권사
06/28	박제연 집사
07/05	이광근 안찬



주사랑 9권 19호 | 창립 2017.11.25
2026년 5월 10일
부활 후 여섯 번째 주일 / 어버이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아버지 주일) 인도: 한승훈 담임목사

※ 목 도 출 20:12, 요 14:6 인 도 자

※ 송영찬송 찬 393장 다 같 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98 아버지주일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579장 다 같 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

대 표 기 도 한은총 자매
(교육부서 대표)

※ 성경봉독 에베소서 6:1~4 (신 316) 한은총 자매

특 송 어머니 마음 교육부서일동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좋은 부모와 참된 부모 담임목사

봉헌찬송 찬 559장 다 같 이
(오병이어헌신 : 이종빈 형제)

※ 축 도 담임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주 일 오 후 예 배

오후 1:30 한승훈 목사

대 표 기 도 말 은 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24:1-51 (신 41)

말씀제목 종말의 때 끝까지 견디는 믿음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 요 저녁예배

오후 7:30 (조직신학)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예레미야 31:1-4 (구 1100)

말씀제목 조직신학 : 선행은총(先行恩寵)

목 요 구역예배

오후 15:00 말 은 이

성경봉독 열왕기하 19:20-37 (구 597)

대 표 기 도 말 은 이

말씀제목 믿음의 간구와 공활의 양파

금 요 심야기도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14:15-21 (신 172)

말씀제목 참수승인하신 보혜사 성령님

새벽 기도회(월~금)

새벽 5:30 사무엘상 묵상

10일(일) 마 24:1-51 종말의 징조들과 준비

11일(월) 삼상 4:19-22 아브넬 성도의 수치심

12일(화) 삼상 5:1-5 빼앗긴 법궤와 영적전쟁

13일(수) 삼상 5:6-12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

14일(목) 삼상 6:1-9 벤사메스의 영적 잔학

15일(금) 삼상 4:12-18 블레셋의 잘못된 속전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⑥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골 1:28-29)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⑦ 사도 바울은 당시 이단세력(세상 철학, 율법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등)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나요? (골 2:6-10)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으로 ()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시라

⑧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 사람은 무엇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나요? (골 3:1-4)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라 우리 생명하신 ()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⑨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골 3:5-6)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가 임하느니라

⑩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므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했나요? (빌 3:12-15)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과 ()와 ()과 ()와 오래 ()을 옷입고 누가 누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하여 피차 ()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하는 자가 되라

(작성하신 답안은 주로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환시간에 축복기도를 해드립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함에 직접 드립니다 / 입금: 2026.05.09. AM 6:00 기준)

십 일 조 : 한은총 한승훈임명순 / 한성결

주정현금 : 문재효 박재연 오동영 임명숙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정현숙 한승훈 한희락 / 한정완 한수지

감사헌금 : 이광근 박재연(자녀) 전복순 정현숙(자녀) 한승훈 임명순 / 김옥화 김주형

월삭감사 : 한성결 한은총 한승훈 임명순 한희락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구역헌금 : 박재연 임명순

선교헌금 : 문동찬 임명자 한승훈 임명순 한태민 / 오복상 방애경

건축헌금 : 정현숙 한승훈 임명순

성미애찬 : 정현숙 한태민 / 김옥화(김치) 농협(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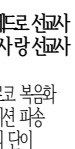
국내선교(오주교훈음스쿨)



해외선교(모로코)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탈북민선교(평화나루교회)



기타 기관 선교



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권면하나요?

(엡 4:22~24)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와 ()의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② 사도 바울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써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당부하나요?(엡 5:8~9)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과 ()과 ()에 있느니라

③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엡 6:11~13)

()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④ 사도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엡 6:14~17)

그 그런즉 서서 ()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을 가지라

⑤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설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빌 1:3~5)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⑥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와 성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한다고 했나요? (엡 1:9~11)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5월의 북한중보기도 - 북한 주민을 삶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스 8:3~7)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땅과 열방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① 북한의 5월 1일은 '국제노동절'로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강제 동원과 희생을 요구하는 모든 불의한 구조가 무너지게 하소서. 노동이 더 이상 억압과 착취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고 존엄한 사명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노동 현장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는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소서. 굶주림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시고, 고된 노동 가운데서도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주소서.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노동의 참된 성서적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통일 이후 북한 사회가 복음적 노동관 위에 재건되어, 노동을 통한 삶의 예배와 섬김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소서.

② 북한의 5월~6월은 전국적으로 '모내기 전투'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황폐해진 농토와 부족한 비료, 농기계를 움직일 연료 부족으로 인해 식량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분단 8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이밥의 고깃국'을 약속하며, 군인과 학생 및 일반 직장인까지 농촌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강제 동원과 식량난 속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부족한 식량 문제가 완화되게 도와주시고, 굶주린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움 속에서 주민들의 마음이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게 하소서.

③ 북한의 5월은 학생 동원과 청년 조직 결속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농촌지원동원과 충성결의 행사, 정치사상 교육과 청년동맹 활동 등을 통해 북한의 청년들은 체제를 위한 충성의 자원으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주님, 강제 동원과 억압 속에 있는 북한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생존을 위해 체제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믿음을 주소서. 북한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의 소망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북한 체제의 한계와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북한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변화의 길을 보게 하시고, 장차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복음의 주역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체제의 도구가 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계선교를 감당할 거룩한 세대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④ 5월 11일(월)에 있는 제14차 북한선교위원회 정기총회를 통해 13차 회기의 결산과 제14차 회기의 준비가 북한선교위원회의 미래를 위해 잘 정비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는 정기총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⑤ 북한선교위원회의 120년차 임원단과 실무임원들, 통선원 이사진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북한선교위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 마음으로 잘 분별하여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	서	예배 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735	남유다 아하스의 등극	왕하 16:1-20
찬송가	 찬 369장	다	같이	732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하 17:1-4
대표기도		말	은이	722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유	왕하 17:5-23
성경봉독	 왕하 20:1~11	윤	독	720	사마리아의 앗수르 이주민들	왕하 17:24-41
말씀인도	 병든 히스기야를 치료하신 하나님	말	은이	715	남유다 히스기야의 등극	왕하 18:1-16
합심기도		다	같이	701	산헤립에 의한 앗수르의 3차 침공	왕하 18:17-37
헌금기도	 찬 212장	말	은이		히스기야의 기도과 하나님의 응답	왕하 19:1-37
주기도문		다	같이		병든 히스기야를 치료하신 하나님	왕하 20:1-11

■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곧 죽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병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십니다. 또한 다가오는 앗수르의 위협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보호해주실 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게다가 치유의 징조를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주십니다.

우리는 생로병사와 생사회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나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질병과 고통에 처해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성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히스기야가 경험한 치유의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입은 왕이라 할지라도 죽을병에 걸립니다(1~3).

산헤립의 침공사건(왕하 18:13~19:37)에 이어 히스기야의 중병(왕하 20:1~11)과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왕하 20:12~19)이 연달아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시간상 앗수르의 산헤립의 침공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6), 브로다 발라단의 치리와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많은 재물(13) 등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히스기야가 젊은 나에 죽을병에 걸립니다. 히스기야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몸에 난 상처’를 고려한다면 염증을 동반한 악성 질환인 듯 보입니다. ‘상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쉐헨’은 ‘중기’, ‘부스럼’, ‘빨갛게 부어오른 염증’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모세의 때에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 사람과 짐승의 피부에 생긴 ‘악성 중기’(출 9:11)나 사람의 피부에 난 ‘중기’(욥 2:7)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히스기야의 죽음으로 남유다의 정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질서를 갖추라는 뜻입니다(1). 특히 앗수르의 위협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왕의 죽음은 나라의 멸망과 직결된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히스기야가 ‘죽음 선고’ 앞에서 좌절하거나 의사를 찾지 않고 곧장 하나님께 매달린 태도입니다. 병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치유와 생명도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은 ‘면벽의 반성’을 위한 태도가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왕실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벽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과 성소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공허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을 상징합니다.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믿음이 변치 않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일들을 언급합니다(3). 이는 히스기야의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통치 초기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산당 제거, 우상 제거, 성전 정화, 유월절의 회복, 말씀과 언약의 갱신, 앗수르를 배반한 일, 산헤립 침공을 위한 대비 등의 내용에 기초합니다(왕하 18:3~8, 대하 29:1~32:8).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의뢰하는 모습에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건한 삶이 늘 평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이전까지 이 땅에서 완전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식을 소유해야만 인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4~7).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읍 중간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공허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더딜 지라도, 하나님의 공호와 사랑은 매우 신속하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자임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공허가 단순히 히스기야만을 위한 자비만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에 기초함을 암시합니다(삼하 7:25~29, 왕상 8:25).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3일은 완전한 회복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이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성전에서 다시 뵈 수 있게 됐고(사 38:11), 정결제사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됐으며, 치유의 확증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셋째 내용인 앗수르의 손에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건지실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6).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치유는 히스기야의 경건한 삶이 긍정적 응답을 받게 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경건을 인정해 주시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죽음 너머에 보장하시는 영생을 소망해야 합니다(8~11).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징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이동’과 ‘10도 뒤로 이동’ 중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왕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기에 어려운 쪽인 후자를 선택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서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기브온에서 태양이 하루를 머물러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수 10:12~15),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니다. 이로써 이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임을 나타내십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서 우리도 모든 질병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믿음과 경건의 양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치유는 주님의 주권과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주시는 은혜 안에 더 깊이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은 죽음 너머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의 경건과 기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히스기야의 경건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하지만,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순간만큼 소중한 영생의 경험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도에게 어려움과 평안은 모두 감사의 조건들입니다.